

맛과 멋의 향연 '전주비빔밥축제' 개막

시, 10일까지 전주한옥마을·전주향교 일원서 비빔요리·공연·비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2022 전주비빔밥축제'가 6일 전주한옥마을에서 펼쳐진 개맛식(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5일간 전주한옥마을과 전주향교 일대에서 '다채로운 전주, 맛에 미(美)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2 전주비빔밥축제'를 진행한다.

류재현 총감독 체제로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비빔밥이 가지는 다채로움과 조화에 의미를 두고, 전통과 현대, 명인과 MZ세프, 음식과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만나는 음식문화축제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치러졌다.

축제의 첫날인 '맛을 여는 날'(6일)에는 닷새간의 대장정의 시작을 알린 개맛식을 시작으로 △비빔밥경연대회 △비보이와 퓨전국악공연을 만날 수 있는 '비빔콘' △비빔밥 재료를 활용해 만든 포토월 '비빔아트월' △축제를 준비한 사람들을 기록한 '아카이빙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이어 5일간 △전주명인·명가이야기 △인생맛찬 △비빔레스토랑 △비빔주막 등 음식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또한 올해 축제에서는 △비빔피크닉 △비빔패티 △비빔테이블 등 특정한 날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전북한상전시 △향교길어울림마켓 △비빔체험 등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2022 전주비빔밥축제'가 6일 전주한옥마을에서 펼쳐진 개맛식(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있다. 프로그램 예약 및 세부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밥축제 누리집(worldbitamweek.corry.io)을 참고하거나, 전주비빔밥축제 사무국(063-283-1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재현 2022 전주비빔밥축제 총감독은 "올해 축제는 전주의 음식 명인·명가 선생님을 필두로, 전주의 MZ

세대 세프들, 요리 꿈나무들이 협업해 다양한 '비빔요리'들을 선보이고, 전주에서 활동하는 많은 청년활동가들과 함께 공연과 공예체험 등 문화적 요소를 가미해 진정한 의미의 '음식문화축제'를 만들어보자는 마음을 담았다"면서 "지역축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대 간, 업종 간의 조화와 협업이 중요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비빔밥축제는 MZ(엠지)세대의 폭넓은 참여로 전통과 젊음의 만남,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더 풍성한 축제가 될 것"이라며, "2022년 전주비빔밥축제가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위상을 더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는 6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개최

인권도시 전주 구축체계 방안 마련·인권위원 대상 워크숍 등 논의

전주시가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6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3년~2027년) 수립 연구역'에 대한 자료와 인권위원회 워크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들은 △인권환경 및 정책수요 조사·분석 △인권도시 전주의 인권정책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인권도시 전주 구축체계 방안 마련 등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 위원 대상 워크숍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기초발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뜻을 모았다. 김병용 시 인권담당관은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를 위해 꼭 필요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인권위원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10월에 열릴 워크숍을 통해 인권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정리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권정책의 비전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 인권도시 전주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쾌적한 가을 축제 만들기 총력

전주시 완산구, 비빔밥축제 행사장 교통 대책·가로환경 정비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전주비빔밥축제 등 가을철 축제를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구는 오는 8일 '차 없는 거리'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문길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행사장 주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을 강화해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먼저 오는 10일까지 5일간 펼쳐지는 2022년 전주비빔밥축제의 주요 행사장인 전주한옥마을 향교길과 동문길 일원을 대상으로 노점상 접근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 행사기간 중 적발된 노점상은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비빔밥축제 기간 중 행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3개반 8명으로 구성된 주정차 단속반도 가동한다. 단속반은 행사장 주변 지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

도·단속에 나서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은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오는 8일 '차 없는 거리'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문길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행사장 주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을 강화해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단속에 나서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은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오는 8일 '차 없는 거리'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문길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행사장 주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을 강화해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제 앞서 구는 지난달 26일부터 가로환경 정비반(3개반 10명)을 편성해 전주한옥마을 일원과 주요간선도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좌판노점과 포장마차, 손수레 등 노점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지도 및 계고 후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전주의 문화 축제를 관람하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완산구, 교통 관련 체납액 집중 징수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는 이달 말까지 주정차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등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완산구는 지난달 8일부터 체납액 2억6천만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현년도 체납자 납부 독려 문자 발송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변호관 영치 △현년도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왔다.

특히 구는 2개소 4명의 영치반을 편성하고 다중 밀집지역과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차량을 이용해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 46대(3500

만 원 상당)의 변호관 영치를 실시했다.

나아가 구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동시에 구는 징수 불능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납세금을 정기적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주채원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6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에 의거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단,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라도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시는 올해 조사에서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 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에 임하게 된다.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별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재훈 기자

Daddy Calling...

Nice to meet samyang

축! 전주매일 창간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천연 유래 Beauty & Personal Care 소재로,

당신의 삶 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samyang life's ingredients